

< 별첨 4 >

# 승장 김윤후의 자료

김 현길 교수  
(충주대 사학과 교수)

## 蒙古의 侵入과 忠州의 抗爭

13세기 초에 대륙에 蒙古族이 일어나 크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서쪽으로는 동유럽을 정복하고 동으로는 滿洲方面까지 진출하여 世界的인 大帝國을 건설한 후 高麗에까지 위협을 가하여 오게 되었다.

몽고족에게 밀려온 契丹族은 高宗 3년(1216) 이후 高麗의 지경을 침입하여 한 때 鐵原·春川을 거쳐 原州를 함락하고 堤川 지역의 박달재(朴達峴)까지 진출하여 왔으나 金就勵 장군의 선전으로 물러가서 高宗 6년(1219)에 江東城에 의거하게 되었다. 이에 高麗와 蒙古軍은 江東城에서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어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蒙古는 高麗에 지나치게 貢物 등을 요구하자 고려는 불응하는 등 하여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 중에 몽고 사신 著古與가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살해되는 일이 있었다(1255 高宗 12). 이를 고려의 소행이라 구실을 삼아 몽고는 高宗 18년(1231)에 고려에 침입하여 오므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에 고려 조정은 이듬해에 江華로 서울을 옮기고 백성들에게는 적이 침입하여 오면 山城이나 海島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는 장기적인 항전을 계획하였으니 몽고군은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전국을 30여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멋대로 침입하여 유린하게 되었다.

몽고의 1次 침입시에도 적은 平安道, 黃海道의 요지를 대부분 장악하고 12월 초에는 開京을 포위하게 되었다. 적의 일부 별동부대는 廣州·忠州·淸州의 여러 성을 공격하였다. 이때 忠州에서는 城을 지키고자하여 副使 于宗柱는 兩班別抄를, 判官, 庚洪翼, 奴軍·雜類別抄를 편성하여 거느리고 방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몽고군이 침입하여 오자 부사와 판관 등은 양반별초와 더불어 도망하여 버렸다. 城에는 오직 노군·잡류별초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굳게 성을 지키고 몽고군을 물리치는데 성공을 하였다.

몽고군이 물러간 뒤 도망쳤던 우종주 등은 돌아와서 성을 지킨 노군들에게 노고를 치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몽고군들에 의해 官私銀器의 없어진 것을 노군들의 소행이라고하여 오히려 노군의 괴수를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이 사실을 안 노군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몽고군이 쳐들어 왔을 때에는 도망쳤던 주제에 이제와서 우리에게 죄를 씌워 죽이게 하니 어찌 참을 수 있겠

느냐」고 하면서 거짓으로 會葬는 것처럼 꾸미고 무리를 모아 주모자를 비롯하여 평소에 원한이 있는 호족들을 수색하여 모두 죽이었다. 이것이 忠州 奴軍이 亂이니 高宗 19년(1232) 정월의 일이었다.

이 亂은 유홍익의 회유책으로 조정의 실권자인 崔怡에 의해서 수습이 일 단락되어 奴軍都領 池光守에게는 校尉의 직을, 중 牛本에게는 大院寺 주지를 삼게 되었다. 그러나 중 우본 등이 다시 소요를 일으켰으므로 이 해 8월에 三軍兵馬使 李子晟을 보내어 노예군을 토멸게 하였다.

이후 몽고의 침입은 高宗 46년(1259) 4월 태자 이 몽고에 들어가 元世祖를 만나 화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28년 간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몽고의 침입이 있었던 각지의 모든 성들은 대부분 함락되었지만 忠州만은 1次 침입때부터 잘 싸워서 성을 지킬 수 있었다. 충주인들의 고향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高宗 40년(1253) 여름 제5차 也古(또는 야고 또는 야굴 窟)가 침입하였을 때 충주에서의 격전은 매우 불만한 것이었다. 이 해 9월에 忠州 倉正 崔守가 金堂峽(지금 東良面)에 북병을 매복시켰다가 급히 적을 쳐서 15급을 베고 兵杖과 포로되었던 남녀 200여명을 빼앗았다. 이 공으로 崔守는 隊正을 제수받았다.

마침내 10월에는 也古 등이 忠州山城을 포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11월에 적장 야고는 병을 얻어 阿母侃과 반역자 洪福源을 머물러 공격케 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이 당시 忠州城에는 高宗 19년(1232)에 2차 몽고의 침입시 적장 撒禮塔을 處仁城(지금의 龍仁)에서 사살한 金允侯가 그 공으로 攝郎將을 제수받고 忠州山城防護別監이 되어 와서 지키고 있었던 때였다.

몽고군의 忠州山城에 대한 공격은 70여일이나 계속되는 혈전이였다. 더구나 이 싸움에는 반역자 李峴이 楊根과 天龍의 두 城을 위협하고 항복받은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忠州城의 항복을 권하면서 공격에 가담하였다. 天龍城은 지금 老隱面과 仰城面의 경계를 이루는 寶蓮山의 정상부에 있는 성으로 일명 寶蓮山城이라고도 한다.

이와같은 오랜기간의 포위 공격으로 城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金允侯는 奴軍들을 불러놓고 「만일 능히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워 이긴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官爵을 줄것이니 나의 말을 믿어라」 하고는 官奴의 符籍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리고 믿음을 보인 다음,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 주며 싸우게 하였다. 身分의 解放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하자 사졸 간에 모두 죽음을 다하여 싸우니 몽고군은 할 수 없이 70여 일의 포위를 풀고 12월 8일에 더 이상 南下하지 못하고 북으로 돌아갔다. 이 忠州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면 전국이 또다시 적군의 말발굽 아래에 크게 유린되었을 것이다.

이 엄청난 守成의 공으로 이듬해인 高宗 41년(1254) 2월에 金允侯는 監門 위 上將軍이 되었으며, 또한 공이 있는 官奴는 물론 백정에 이르기까지 차등 있게 벼슬을 주었다. 4월에는 忠州도 國原京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 모두는 忠州人들의 異民族의 침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자기 고장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식의 발로라고 하겠다.